

2018년 12월 13일, 제주시 도남동 김절자 씨 댁, 이현정 조사.

김절자(여, 1942년생, 제주시 도남동)

-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서 출생, 중학교를 졸업하여 서울로 이주하였다가 30세가 넘어 제주도로 돌아 왔다. 이후 제주시 이도1동에서 10여 년간 살다가, 도남동으로 옮겨 30여 년간 거주하고 있다.

- 줄거리: 옛날 어떤 할머니가 죽어 땅에 묻으려 했는데, 숨은 쉬지 않지만 심장의 온기가 식지 않아 매장을 못 하고 있었다. 할머니의 몸에서 온기가 식기를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, 죽었던 할머니가 되려 깨어났다. 깨어난 할머니가 말하기를 저승사자가 죽을 이의 주소와 이름을 잘못 알고 실수로 자신을 데려왔다고 하면서, 아직 저승에 올 때가 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있다가 오라고 전하고는 다른 이를 저승으로 다시 데려갔다고 말했다.

[조사자] 혹시 저승, 죽었다가 살아난 할망 얘기 7튼 건 안 들어나셨마씨?

[제보자] 거 직접 들진 안해도 건넌. 옛날에 할머니가 이제는 돌아가셨잖아이. 돌아가시니까. 땅 속에 묻젠 허난이 여기가 따뜻허니까이. 심장에, 숨은 안 쉬지만 이게 따뜻허니까 매장을 못했어이. 매장을 못헤면 막 이제 기다리는 거라. 노인네가이 막 숨이 다 돌아가신 줄은 아는데, 심장이 아직은 따뜻허니까. 얼른 물어버릴 수가 없잖아. 겐 한참 기다련.

헌데 나중에는 이 노인네가 깨난. 깨난 허는 말이

“아직은 자기가 갈 때가 아니니깐. 그 저승사자덜이 주소를 잘못 알아서 자기를 데려강, 데려가고 보니까 서류가 자기 이름이 아니라서 너는 더 이따가 오라.”

허고 다른 사람을 잡아갓덴. 다른 사람을 데려가그네 자기 있는 이름이 없으니까 헐

“너는 어느 날 어느 시에 와라. 지금 이거는 너가, 너 차례가 아니고. 거니까 저승사자덜이 주소를 잘못헐 이름을 잘못 데려간 거다.”

경헤연 데려가난 그 사람이 살아난 거지이. 눈을 뜨고 보니깐 어떻게 어떻게 하난 그 얘기를 헐 거라.

- 핵심어: 저승사자, 매장, 주소, 이름, 심장, 할머니